

## 본당 소식

### 2024년 10월 교황님 기도지향 : '공동 사명'

교회가 사제, 수도자, 평신도의 참여와 친교와 공동 사명을 증진하면서 공동책임성의 표지인 시노달리타스의 생활 방식을 모든 면에서 지켜나가도록 기도합니다.

- ♣ 미사 전,후 화장실을 이용하실 경우, 성가대쪽 출입문을 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의실은 전례위원, 그날 복사 외 출입 불가)
  - 미사 후, 성전 내 소등에 다 함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오라토리오는 밀라노 교구 이민자국의 요청과 산고타르도 성당의 협조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음을 늘 유념하도록 합시다.

### ♣ 밀라노 한인성당 성가대 오페라갈라 음악회

- 일시: 10월 26일(토), 오후 5시.
- 장소: Oratorio Gentilino.

### ♣ 다음 주일(20일)에 두 분 손님 신부님 저희 본당에 오셔서 함께 미사 봉헌합니다.

- 최학성 세례자 요한 신부님(미국 페이엇빌)
- 임형준 그레고리오 신부님(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 ♣ 모임/회의

- 사목회의: 오늘(13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안희관 요셉

###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70,12€ • 교무금 720,00€

### 전례 성가

입당 : 29 (주 예수 따르기로)

봉헌 : 512 (주여 우리는 지금)

성체 : 159 (세상의 참된 행복), 153 (오소서 주 예수여)

파견 : 31 (이 크신 모든 은혜)

### 전례 봉사

이번 주일(10월 13일)	다음 주일(10월 20일)
1독서: 안희관 요셉	1독서: 강한 프란체스코
2독서: 현상휘 루치아	2독서: 박수정 클라라
복사: 강윤이 스텔라, 정이한 다윗	복사: 엄채윤 엘리사벳, 정아인 레나

##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총무: 변의용 베네딕토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2024년 10월 13일 (녹) 연중 제28주일(군인 주일)

### 미사 전례

### 본기도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화답송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가 비참했던 그 날수만큼, 불행했던 그 했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

○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 제1독서 (지혜서 7,7-11)

7 내가 기도하자 나에게 예지가 주어지고

간청을 올리자 지혜의 영이 나에게 왔다.

8 나는 지혜를 왕홀과 왕좌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9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도 지혜와 견주지 않았다. 온 세상의 금도 지혜와 마주  
하면 한 줌의 모래이고 은도 지혜 앞에서는 진흙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10 나는 지혜를 건강이나 미모보다 더 사랑하고 빛보다 지혜를 갖기를 선호하였다.  
지혜에서 끊임없이 광채가 나오기 때문이다.  
11 지혜와 함께 좋은 것이 다 나에게 왔다.  
지혜의 손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이 들려 있었다.

## 제2독서 (히브리서 4,12-13)

12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쟁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13 하느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셈을 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 복음 (마르코 10,17-27)

그때에 17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18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19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  
독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20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1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2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3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24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  
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25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26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27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 주님께 의탁하는 교회를 살피 주시어, 세상 속에서 참된 길을 찾고 그  
길을 좇게 하시며, 힘없고 소외된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참사랑을 실천하게 하소  
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굽어보시어, 오늘날 세계가 겪는 많은 위기를 이겨  
내고자 적극 나서며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게 하소서.
  3. 군인 주일을 맞아, 군인들과 군종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군의 주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과 군의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는 군종 사  
제들을 보살피 주시어, 그들이 충실하게 임무를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소서.
  4. 밀라노 한인성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묵주기도 성월을 지내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성경 말  
씀은 물론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 안에서 주님 구원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고 삶으  
로 실천하게 하소서.
- ## 영성체 후 기도
-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